

미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연구의 주체적방법론

리 광 천

미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가지자면 미의 본질을 연구하는 방법론자체가 바로 설정되어야 한다.

미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연구에서 주체미학은 주체철학이 밝혀주는 방법론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대할데 대한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을 밝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의 본질과 법칙을 사람의 자주성과의 관계에서 밝힌것은 주체사상이 인류미학사상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력사적공적으로 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5권 320페이지)

미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연구의 주체적방법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미의 본질을 철저히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지향과의 관계속에서 연구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주체미학은 미의 본질이 철저히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과의 관계속에서 탐구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을 밝혀준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현상의 본질을 밝힌다는것은 그 존재와 발전을 담보하고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밝힌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물현상은 자기의 고유한 규정성을 가지고 자체의 내적인 법칙에 따라 변화발전해나간다. 뿐만아니라 사물현상은 사람과 필연적인 련관을 맺게 되며 이로부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규정지어지는 성질도 가진다. 레컨대 꽃은 자기의 생물학적특성을 가지고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 피고지는 순수 자연적인 속성이 있는 한편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정서를 안겨주는 미적체험의 대상으로, 문화의 상징으로 될수 있는 미적성질도 가지고있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현상은 다 자기의 고유한 규정성을 가질뿐만아니라 아름다운것을 비롯한 미학적범주로 표현되는 질적특성을 나타낸다. 이 질적특성으로 하여 사물현상은 아름다운것과 아름답지 못한것으로 구별되며 인간생활과 다양한 미적관계를 맺게 된다.

사물현상의 미적본질을 밝힌다는것은 바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규정지어지는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징표를 밝힌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물현상이 아름다운것으로서 가지고있는 질적특성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속성과는 달리 철저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규정성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아름다운 사물현상의 존재와 변화, 미의 인식과 창조에서 기본을 이루며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사람이기때문이다.

사람은 미의 존재와 변화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람은 자주성에 기초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있다.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와 지향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이다.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의 정신적요구와 물질적요구는 끊임없이 증대된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며 세계의 유일한 주인, 유일한 개조자이다. 사람은 창조적활동으로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세상에는 사

람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현상은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사물현상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결국 그것이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으며 그것을 충족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부합될 때 가치를 가지게 되며 아름다운것으로 된다. 사람은 오랜 생활과정에 자기의 요구에 맞는것을 아름답게 느끼게 되었으며 그것을 사랑하고 지향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미적요구와 미적리상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의 구체적표현이며 고상한 정신적요구의 한 측면이다.

아름다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물현상의 질적규정성인것만큼 그것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부합되는 한에서만 보존된다. 사회력사적으로 끊임없이 높아지는 사람의 물질정신적요구에 맞지 않게 되면 지난 시기에는 아름답던 사물현상도 더는 아름다운것으로 느껴질수 없다.

이처럼 미는 객관적인 대상, 사물현상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떠난 미란 있을수 없다. 사람이 있고서야 자연의 미, 사회의 미, 예술의 미 등 이 세상의 모든 미가 있을수 있다. 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것만큼 사람이 발전하는데 따라 미도 변화발전한다. 사람이 발전하면 주위세계에 대한 인간의 미적관계가 달라지며 미의 영역도 넓어지게 된다.

사람은 미의 인식과 창조의 주체이다. 미를 요구하는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도 사람이다.

사람은 미적요구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미의 인식과 창조의 주체로 된다. 미를 인식하고 창조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인간의 품모는 더욱더 아름다와지게 되고 자연과 사회는 보다 훌륭히 미적으로 개조되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미가 있고 미의 인식과 창조의 주체가 사람인것만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의 관계속에서 모든 미학적문제들을 분석하는것은 주체미학을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미학으로 되게 하는 방법론적지침으로 된다.

력사적으로 볼 때 미의 객관적인 물질적기초를 주장한 유물론적견해와 또 미를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의 산물로 보는 관념론적견해가 서로 대립되게 된것도 결국은 그 철학적방법론이 서로 다른데 그 원인이 있다.

맑스주의미학 이전시기에는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문제의 테두리안에서 즉 물질이 1차냐, 의식이 1차냐 하는 세계의 시원문제를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원칙으로 하여 미의 본질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지난 시기 미학사에서는 미를 순수 객관적인 성질로 보거나 순수 주관적인 성질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이전시기의 유물론자들은 미를 순수 객관적인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버어크, 디드로를 비롯한 유물론미학자들은 미를 사물현상의 구조나 물체의 외면에 주어진 자연적속성에서 찾음으로써 미의 자연적인 객관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미가 하나의 객관적존재이며 객관적사물자체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차드는 《미의 객관성》이라는 책에서 미의 객관성은 절대적인바 그것은 인간의 주관적의지에 의하여 전이되지 않으며 사람이 그것을 감상하는가 안하는가에 관계없이 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성질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미의 객관적속성을 긍정하는 면은 있지만 미인식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역할을 무시하는 치명적결함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기계적유물론에 귀착되는 잘못된 견해이다.

미를 순수 주관적인 성질로 보는 미학자들은 미가 객관적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미적 체험자의 주관적평가라고 하였다.

흠, 칸트, 쇼펜하우에르, 크로쎈 등 주관관념론자들은 미가 사물에 속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속하는것으로서 사람의 주관적의식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순수 주관적인것이라고 하였다. 흠은 미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칸트는 미가 존재에 의거하지 않는 주관적판단이라고, 크로쎈은 미가 직각에 원천을 둔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자라고 할수 있는 흠은 《미는 결코 사물자체의 하나의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감상자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매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미를 본다. 이 사람이 추하다고 느끼는것을 다른 사람은 아름답다고 느낄수 있다. 매 사람은 웅당 그자신의 감각을 묵인하여야 하며 옆사람의 감각을 지배할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실재적인 미 혹은 실재적인 추를 찾으려는것은 실재적인 달고섬을 확정하려는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탐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미가 사물에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마음에 존재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미적판단에서 노는 역할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미감으로 미를, 미적평가로 미적사물을, 미적경험으로 미적속성을 대치시키는것으로서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오도하는 그릇된 견해이다.

종래의 철학이 물질의 1차성을 주장하는 객관적인 물질위주의 유물론철학과 물질과 독립한 그 어떤 의식, 정신위주의 관념론철학으로 갈라진것으로 하여 맑스주의미학 이전의 미학의 력사는 결국 객관적물질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한 미학과 물질과 독립한 의식을 중심에 놓은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한 미학의 대립과 투쟁의 력사로 특징지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시기에 미를 사람과 결부시켜 논의한 미학적견해들도 미를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지향과의 관계에서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아름다운것은 생활이라고 하면서 미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체르니쉴스끼는 인간의 생명력, 열정의 표현을 미로 보았다. 그는 미를 사람의 생활과 결부시킴으로써 미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유물론적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체르니쉴스끼는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 봄으로써 미의 사회적성격을 보지 못하였으며 미의 본질을 생물학적속성에 귀착시켰다.

맑스-레닌주의에서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한 미학을 내놓고 미를 인간과 결부시키는 견해를 내놓았다. 맑스주의고전가들은 선행시기의 미학적견해들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인간을 사회적존재로 규정하고 미를 사회적인간과 결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봄으로써 미를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회경제적조건을 위주로 하여 보게 되었다.

맑스주의미학은 인간의 위력의 표현을 미라고 하였다. 미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은 미를 사람을 떠나서 분석하는 견해를 타파하고 미의 본질을 사람과 결부시켜 볼수 있게 하는데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미를 사람과 결부시켜 분석한 이러한 견해들도 객관적현실을 옳게 반영한 과학적인 견해로는 될수 없었다.

인간의 생명력, 열정, 인간의 위력이라고 하여 언제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위력이나 생명력, 열정은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부합될 때에만 아름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낡은것을 반대하여 나온 새것은 발생초기에 비록 위력한것으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는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느껴진다.

맑스주의미학은 미문제에서 객관성과 주관성, 절대성과 상대성의 호상관계를 변증법적으로 결합시켜 연구하면서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자주적요구와의 관계에서 미를 취급하지 못하였으며 미의 본질규정에서도 미인식의 주관적인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맑스주의미학이 의식을 물질에 의해 규제되는 2차적인것으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미의 본질을 규정한것과 관련되어있다.

이처럼 사람밖의 초자연적인 정신적실체에서 미의 본질을 찾은 객관관념론적견해나 사람밖의 사물현상자체에서 미의 본질을 찾은 유물론적견해는 더 말할것도 없고 미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구한 견해들도 사람의 자주적요구와의 관계에서 미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주체미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철학적방법론에 기초하여 미를 철저히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과의 관계속에서 연구함으로써 아름다운것이란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으며 사람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파악되는 사물현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존재이며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라는것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할데 대한 주체적방법론에 의거한 주체미학만이 사람의 자주적요구와의 관계에서 미의 본질을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었다.

미의 본질을 사람의 자주성과의 관계에서 과학적으로 밝힌것은 주체사상이 인류미학사상발전예 특출한 기여를 한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우리는 미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연구의 주체적방법론을 똑바로 알고 미연구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미학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더욱 과학적으로 론증하여야 할것이다.